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성경이 성경을 변호한다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부록 '성경이 성경을 변호한다', 629–658쪽. 바로 뒤가 부록 G이므로 부록 F로 보인다. 처음 실린 곳은 John W. Montgomery 엮음, *God's Inerrant Word*(1974)이다.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성경은 자기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나?”라는 평범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그는 이 질문이 사실상 성경 권위 논쟁의 전부라고 본다. 가장 높은 기준은 그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일종의 순환은 피할 수 없다고 먼저 인정한다. 그 위에서 기존 정통 논의에 두 가지를 보탠다. 하나는 성경의 자기 증언이 몇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배어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자들의 그럴듯한 추론을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는 점이다. 본론은 세 단계로 간다. 성경의 구원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곧 절대적 요구와 확실한 약속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처음부터 기록된 언약 문서로 주셨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구약을, 그리고 사도들 자신의 글을 바로 그런 말씀으로 대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초월하시므로 인간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다”는 바르트·브루너의 반론을 분석한다. 프레임은 그 반론이 오히려 성경의 하나님을 잃게 만든다고 결론짓는다.

📜 절별 정리

📜 1. 들어가며 ①: 평범하지만 결정적인 질문

이 글은 본서 14–41장(성경의 자기 증언)과 7장(현대신학)을 보충하려고 실렸다. 프레임은 먼저 이 질문이 왜 결정적인지 설명한다.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칭의 같은 교리를 성경으로 증명하듯, '성경의 권위'라는 교리도 일관성을 지키려면 성경으로

정말 그렇게 되나? 모르몬경도 그렇게 주장한다.” 프레임은 이 반론이 어느 정도 맞다고 인정한다. 주장은 증거와 맞대어 보아야 하고, 증거는 각자의 전제를 통해 읽힌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전제로, 합리주의자는 합리주의의 전제로 증거를 본다. 그런데 '궁극적 기준'을 세울 때는 일종의 순환을 피할 수 없다. 다른 기준에 호소하면 그 다른 기준이 궁극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비신자에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믿어”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성경을 역사적 원자료로 읽게 하되, 그리스도께서 생각의 기준과 증거를 따지는 방식까지 바꾸는 전인적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은 숨기지 말아야 한다.

1. 성경 권위도 성경으로 증명할 교리다
2. 셀프 주장만으로 증명되진 않는다(인정)
3. 증거는 언제나 전제를 통해 읽힌다
4. 궁극적 기준에는 일종의 순환이 불가피하다
5. 비신자는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읽게 하라

장절	이 구절의 역할
—	이 절은 구절 인용 없이 논리로 전개된다(순환논증 논의는 본서 부록 E로 연결)

📜 2. 들어가며 ②: 기존 논의에 보탤 두 가지

프레임은 가우센, 워필드, 카이퍼, 머레이, 영, 반틸, 클라인 같은 선배들이 이 주제를 대체로 잘 다뤄 왔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도 두 가지를 개선하자고 말한다. 첫째는 자기 증언의 '편만성', 곧 성경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음을 더 강조하는 것이다. 성경은 왕의 족보를 말하든 포도원이나 광야 여정을 말하든, 그 말하는 방식 자체로 자신이 어떤 책인지 증언한다. 구속·화해·칭의 같은 교리의 짜임도 말씀이 맡는 역할을 전제한다. 이 점을 놓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하나는 권위 교리가 디모데후서 3:16과 베드로후서 1:21 두 구절에만 기댄 곁가지 교리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그 두 구절이 늦게 쓰였고 율법주의적이라며 밀어낸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와 성경을 떼어 놓을 수 있다는 착각이다. 둘째 개선점은 반대자들의 초로을 진지하게 다루는 것이다.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자들의 추론은 겉보기에 그럴듯하므로, 그 그럴듯함의 이유와 깊은 오류를 함께 드러내야 정통 견해가 더 설득력을 얻는다.

1. 성경은 무엇을 말하든 자신도 증언한다
2. 교리의 짜임이 말씀의 역할을 전제한다
3. 두 구절에만 기대면 곁가지 교리가 된다
4. 그리스도와 성경을 떼는 착각을 막아야
5. 반대자 추론의 '그럴듯함'까지 분석하라

장절	이 구절의 역할
디모데후서 3:16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람들이 영감 교리의 '유일한 근거'로 여기는 두 구절 중 하나. 프레임은 근거가 이 둘만이 아니라고 말한다
베드로후서 1:21 >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같은 역할. 자유주의는 이 두 구절을 늦게 쓰인 율법주의 문서로 치부한다
고린도후서 4:4 >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반대자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 이유. 그래도 그들의 추론은 따로 분석해야 한다

📜 3. 계시된 말씀과 구원 ①: 주님과 종

성경은 '책에 관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구원에 관한 책이다. 그러나 구원 메시지 안에는 말씀에 관한 메시지가 들어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이 기록한 인간의 첫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다. 그 명령이 인간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했고, 목자든 교사든 주부든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울렀다. 땅을 다스리는 권한조차 하나님께 받은 것이었다. 프레임의 논리는 단순하다. 하나님은 주님이고 인간은 종이다. 명령

우리를 피조물로 규정하듯 죄인으로도 규정한다. 구속은 하나님 주권을 다시 선포하는 일을 포함한다. 그 요구는 세 가지 뜻에서 절대적이다. 따질 수 없고, 다른 모든 충성보다 앞서며,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친다. 신약은 음식법과 제사법을 문자 그대로 지킬 의무에서는 풀어 주었지만, 요구가 삶 전체에 미친다는 점은 오히려 더 분명히 한다.

1. 인간의 첫 경험은 하나님 말씀 듣기
2. 명령→순종→책임→권위→주권
3. 죄 =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는 것
4. 절대성 ①: 따질 수 없는 명령
5. 절대성 ②③: 1순위이고, 삶 전 영역에 미친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창세기 1:28 >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의 첫 경험인 하나님의 명령. 정체와 사명과 삶 전체를 정한다
창세기 2:17; 3:6, 11 > **창세기 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 **창세기 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 **창세기 3:11**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선악과 명령과 불순종. 타락도 말씀을 기준으로 규정된다
요한일서 3:4 >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의 가장 단순한 정의는 불법, 곧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는 것

장절	이 구절의 역할
>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로 자신을 밝히심. 절대 주권을 확언한다
창세기 26:5; 22:18; 로마서 4:20 > **창세기 26:5**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 **창세기 22:18**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 **로마서 4: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첫째 절대성.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았다
출애굽기 20:3; 신명기 6:4-5; 마태복음 22:37; 6:24 > **출애굽기 20: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 **신명기 6:4-5** 4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 **마태복음 22: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 **마태복음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째 절대성. 다른 신, 다른 주인과의 경쟁은 없다
마태복음 10:37; 19:16-30; 8:19-22; 빌립보서 3:8 > **마태복음 10:37**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 **마태복음 19:16-30** 16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8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예수님이 여호와와 똑같은 충성을 요구하심. 그리스도 신성의 증거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21]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 > **마태복음 8:19-22** [19]한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20]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21]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 **빌립보서 3: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고린도전서 10:31; 골로새서 3:17; 고린도후서 10:5; 로마서 14:23 > **고린도전서 10: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 **골로새서 3: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 **고린도후서 10:5**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 **로마서 14:23**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셋째 절대성. 먹고 마시는 일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 4. 계시된 말씀과 구원 ②: 구세주와 죄인

하나님이 주권만 다시 선포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이미 그 요구를 어겨서 죽어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이시면서 구세주이시고, 율법과 함께 복음을 주신다. 프레임이 강조하는 점은 복음도 '언어로 된 메시지'라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죄를 씻기에 충분하다는 것은 어떤 인간의 지혜로도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를 선포하고 구원을 약속할 권리를 가지신다.

두고 막연한 '개인적 관계'만 고집하면, 결국 성경의 그리스도 대신 상상 속 그리스도를 붙드는 셈이다. 이 말씀은 철학이나 신학이나 '현대 학문의 확실한 결과'가 뒤집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그런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많은 종교가 그런 말씀을 가졌다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마귀의 음성이나 내 마음의 상상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다음 단락으로 이어진다.

1. 요구만 있으면 죄인은 멸망한다
2. 복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다
3. 확실한 약속 없이는 구원도 없다
4. 말씀 없는 '관계'는 상상 속 예수
5. 그 말씀은 어디서 찾나? → 다음 절

장절	이 구절의 역할
로마서 3:23; 6:23 **로마서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두 죄를 지었고 죄의 삯은 사망. 요구만으로는 소망이 없다
로마서 4:19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다
요한복음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마태복음 7:24-29; 마가복음 8:38; 누가복음 8:21; 요한복음 8:31; 14:15, 21, 23; 15:7; 17:8, 17 **마태복음 7:24-29** 24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그리스도를 받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받는 것. 예수님이 반복해서 강조하신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같으리니 [27]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8]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29]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가복음 8:38**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복음 8:2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5: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7:8**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7: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임 없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성경은 우리를 성경으로 보낸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의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 프레임은 먼저 단서를 단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은 아니다.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와 사도의 말이 있었고, 하나님은 바람과 파도에게도 말씀하셨으며,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는 자리로는 하나님이 책을 주셨다. 기록은 아주 일찍 시작되었다. 창세기의 '계보' 기록에는 영감된 예언이 담겨 있다. 하나님이 공인하신 책이 처음 분명하게 언급되는 곳은 아말렉 전쟁 직후이고, 그 책의 내용은 하나님 자신의 맹세였다. 더 중요한 장면은 출애굽기 24장이다. 모세가 말씀을 기록해 낭독했고, 백성은 그것을 하나님의 요구로 받았다. 이어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이 주어진다. 다만 프레임은 '하나님의 친수'만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인다. 모세가 쓴 글도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같은 권위를 가진다. 프레임은 왜 이렇게 신적 저작을 강조하는지 묻고, 메리데스 클라인의 제안을 소개한다. 고대 근동에서 대왕이 신하 왕과 '종주권 조약'을 맺을 때 대왕이 조약 문서를 썼다. 그 문서에 순종하는 것이 곧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었다. 하나님도 시내산에서 이런 언약 문서를 주셨고, 그 문서를 언약궤 곁에 두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더하거나 뺄 수 없다.

1.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2. 그러나 우리를 위해선 책을 주셨다
3. 출애굽기 17장, 24장: 기록된 하나님 말씀
4. 사람이 써도 하나님 말씀이면 같은 권위
5. 종주권 조약: 대왕이 쓴 언약 문서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창세기 1:3; 시편 33:6, 9; 147:15-18; 마태복음 8:27 **창세기 1: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시편 33:6**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33:9** 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매 견고히 섰도다	자연에게 하신 말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안내서는 아니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18]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마태복음 8:27**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요한복음 1:1, 14 **요한복음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 자신·그리스도와 동일시됨. 성경이 '말씀'의 전부는 아니다
창세기 2:4; 5:1 외 '계보' 표제들 **창세기 2:4**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처음부터 구속사를 기록해 후손에게 전했다
창세기 9:25-27 [25]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26]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창세기 안의 영감된 예언. 노아의 말이 훗날 성취되었다
출애굽기 17:13-16 [13]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15]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16]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공인하신 책의 첫 분명한 언급. 내용은 하나님의 맹세다
출애굽기 24:4, 7 **출애굽기 24:4**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출애굽기 24:7**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모세가 기록하고 낭독하자 백성이 “준행하겠다”고 받음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출애굽기 24:12; 31:18; 32:16 **출애굽기 24: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출애굽기 31:18**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출애굽기 32:16**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 신적 저작을 강조한다
출애굽기 34:32; 신명기 18:15-19 **출애굽기 34:32**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신명기 18:15-19** 15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6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 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17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18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19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중재자·선지자 모세가 전한 글도 같은 권위를 가진다
신명기 31:26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언약궤 곁에 두어 '증거'로 삼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다
신명기 4:2; 12:32; 잠언 30:6; 요한계시록 22:18 **신명기 4: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12:3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인간 저작과 구별되는 하나님 말씀이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요한계시록 22:18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 6. 계시된 말씀과 성경 ②: 언약 구조가 보여 주는 권위의 넓이, 그리고 자라가는 구약

클라인이 정리한 조약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대왕이 자기 이름을 밝히고, 지난날 베푼 은혜를 서술하고, 사랑(충성)을 기본으로 요구한 뒤 세부 요구를 제시한다. 이어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고, 문서를 어떻게 보관하고 낭독할지 정한다. 십계명과 신명기에는 이 요소가 모두 들어 있다. 프레임은 신학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한 가지로 너무 단순화한다고 비판한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인격적 자기 드러냄만, 어떤 이는 역사 서술만, 어떤 이는 사랑의 요구만, 어떤 이는 축복의 약속만 붙든다. 언약 구조는 이 모든 요소를 담고, 사랑과 율법, 은혜와 요구, 선포(케리그마)와 가르침(디다케), 인격적 드러남과 사실 진술을 각각 제자리에 둔다. 언약 문서 안에는 사실을 말하는 명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명령, 질문, 그리고 말하는 순간 일을 이루는 '수행문'도 있다. 그래서 불오성은 성경 권위의 일부일 뿐이다. 프레임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는 생각이 20세기 근본주의나 17세기 정통주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디모데후서나 포로기 이후 유대교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다. 이 생각은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질 때부터 있었고, 성경은 이스라엘의 헌법이었다. 그래서 구약 내내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시고, 이스라엘의 회개는 곧 말씀으로 돌아오는 일이었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금지가 있는데도 여호수아가 말씀을 덧붙였다. 이는 그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었다는 뜻이다. 선지자들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로 말했고 그 일부를 기록했다. 브루너 같은 비판자조차 선지자들이 자기 말과 하나님 말씀이 하나라고 주장했음은 인정한다.

1. 십계명에 조약의 요소가 다 들어 있다
2. 권위를 한 가지로 줄이지 말라

5. 회개 =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출애굽기 20:2; 3:14 **출애굽기 20: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3: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조약 요소: 이름을 밝힘 + 구원의 역사를 서술함
출애굽기 20:3; 신명기 6:4-5; 요한일서 4:19 **출애굽기 20: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신명기 6:4-5** 4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한일서 4: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기본 요구는 사랑(충성). 먼저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다
출애굽기 20:12-17 12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13살인하지 말라 14간음하지 말라 15도둑질하지 말라 16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세부 요구
출애굽기 20:5, 12 **출애굽기 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애굽기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순종에 따른 축복, 불순종에 따른 저주
신명기 31:24-29 24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25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6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7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28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문서 보관과 언약 집행 (신명기의 주요 강조점)

장절	이 구절의 역할
>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신명기 6:17; 여호수아 1:8; 시편 1:1-3; 19:7-11; 119편; 이사야 8:16-20 **신명기 6:17**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수아 1: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시편 1:1-3** 1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9:7-11** 7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시편 119장** 1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2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4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5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6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 **이사야 8:16-20** 16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17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18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9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20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구약 전체에 반복되는 '기록된 말씀을 지키라'

장절	이 구절의 역할
>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열왕기하 23:21**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열왕기하 23:25**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느헤미야 8장** [1]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2]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4]그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맛디댜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므술람이라 [5]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	말씀으로 돌아오는 일이었다
여호수아 24:26 >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언약 문서에 대한 추가. 여호수아의 말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되었다
신명기 18:15-19; 예레미야 1:6-19; 이사야 8:1; 예레미야 30:2; 36:1-32 **신명기 18:15-19** [15]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6]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 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려건대 내가 죽을까 하니이다 하매 [17]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일부를 기록했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19]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예레미야 1:6-19** [6]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7]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10]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1]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 **이사야 8:1**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하스바스라 쓰라 **예레미야 30:2**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 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예레미야 36:1-32** [1]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사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2]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 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3]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4]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5]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6]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	

“불오성이라는 용어는 성경 권위를 적절하게 특징지우기에는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한 용어이다.” (각주 42)

📜 7. 계시된 말씀과 성경 ③: 예수님과 사도들의 구약관

예수님 시대에는 이미 '거룩한 성경'으로 인정받던 문서 모음이 있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받아들였으며, 말과 행동으로 증언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지상 사역 동안 자신을 구약에 온전히 굴복시키셨다. 성경을 이루려고 일하셨고, 죽음과 부활도 성경이 미리 정했다. 마귀 앞에서도, 논쟁을 끝낼 때도 성경을 인용하셨다. 구약을 부르는 이름('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인용 공식(“기록되었으되”, “성령이 이르시되”)은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권위 있는 말씀'을 뜻했다. 워필드가 지적했듯 “성경이 이르되”와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서로 바꿔 쓸 수 있다. 프레임은 여섯 본문을 하나씩 짚는다. 마태복음 5장: 일점일획까지 권위가 있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기준이다.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은 유대인의 인용 관습을 그냥 따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모세를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꾸짖으셨다. 예수님의 성경관이 바리새인보다 더 강했고, 모세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전제였다. 요한복음 10장: 아주 모호한 시편 한 구절에 대해서도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고 하셨다. 로마서 15장: 구약 전체가 지금의 우리를 가르친다. 베드로후서 1장: 죽음을 앞둔 베드로가 목격자들이 떠난 뒤에도 남을 '더 확실한 말씀'을 가리킨다. 그 말씀은 인간의 해석이나 뜻에서 나오지 않았고, 성령이 저자들을 이끄셨다. 디모데후서 3장: 거짓 교사가 판치는 상황에서 붙들 것은 '하나님이 숨을 내쉬신' 성경이다. 헬라어에서 '영'과 '숨'이 가까운 말이므로 이 표현은 성령의 활동을 암시한다.

1. 예수님은 구약에 자신을 굴복시키셨다
2. “성경이 이르되” = “하나님이 이르시되”
3. 일점일획, 모호한 시편까지 권위가 있다
4. 구약 전체가 지금 우리에게 적실하다
5.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내쉬신 말씀이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마태복음 26:54-56; 누가복음 24:44 > **마태복음 26:54-56**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려고

장절	이 구절의 역할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56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누가복음 24: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누가복음 24: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고난과 영광 (죽음과 부활)도 성경이 미리 정했다
마태복음 4:1-11; 22:29-33 **마태복음 4:1-11** 1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3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5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 **마태복음 22:29-33** 29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30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31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33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마귀 앞에서도, 사두개인과의 논쟁을 끝낼 때도 성경을 인용하셨다
마태복음 5:17-19 17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일점일획까지 신적 권위가 있고, 순종이 천국에서 '큼'의 기준이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요한복음 5:45-47 > 45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46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47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었을 것. 예수님의 성경관이 당시 관습보다 강했다
요한복음 10:33-36(시편 82:6 인용) > **요한복음 10:33-36** 33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34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36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모호해 보이는 시편 한 구절에도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로마서 15:4 >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구약 전체가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인내·위로·소망을 준다
베드로후서 1:16-21 > 16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7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19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0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목격자가 떠나도 남는 확실한 말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셨다
디모데후서 3:14-17 > 14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혼란 속에서 붙들 것. 하나님이 숨을 내쉬신 성경은 선한 일에 충분하다

📜 8. 계시된 말씀과 성경 ④: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구약의 하나님은 요구와 약속을 문서로 주셨다. 그런데 신약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으셨다면 이상한 일이다. 예수님은 자기 말에 순종하는 것이 참 제자의 기준이라고 거듭 말씀하셨다. 신약이라는 '언약 문서'가 없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더듬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이 제자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고 약속하셨다. 오순절 이후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했고, 자기 메시지의 출처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 그 절대적 권위는 사도의 입말뿐 아니라 기록된 글에도 주어졌다. 베드로는 바울 서신을 '다른 성경'과 같은 줄에 두었다. 정경 문제에 대해 프레임은 솔직하게 인정한다. 신약의 자기 증언 안에는 정경 목록이 없다. 그래도 말씀이 구원에 꼭 필요하다면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씀을 찾도록 하실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 다툼 많은 교회 역사에서도 신약 정경을 두고 교회가 갈라진 적은 없었다. 그는 고린도전후서와 클레멘트의 편지를 나란히 읽고 기도해 보라고 권하며, 그리스도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한다. 이 단락의 중간 결론은 두 가지다. 첫째, 구원 메시지 전체가 절대적 요구와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전제한다. 둘째, 하나님은 구속사 내내 백성이 그 말씀을 기록된 신구약에서 찾도록 이끄셨다.

1. 성육신하신 하나님도 '문서'를 주셨다
2. 성령이 사도를 진리로 인도하셨다
3. 권위는 사도의 기록된 글에도 있다
4. 베드로가 바울 서신을 '성경'으로 불렀다
5. 신약 정경으로 교회가 갈라진 적은 없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요한복음 14:15, 21, 23; 마가복음 8:38; 누가복음 8:21 **요한복음 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제자도의 기준. 그러면 그 말씀은 어디 있나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마가복음 8:38**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복음 8:2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13; 사도행전 1:8 **요한복음 16: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제자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는 약속
사도행전 2:4; 4:8, 31 **사도행전 2: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4:8**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사도행전 4:31**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한 뒤 전함. 자기 힘으로 전한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1:1; 고린도전서 2:10-13 **갈라디아서 1:1**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고린도전서 2:10-13**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사도 메시지의 출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장절	이 구절의 역할
>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4:37; 골로새서 4:16; 데살로니가전서 5:27; 데살로니가후서 3:14 > **고린도전서 14:37** >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 **골로새서 4:16** >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 **데살로니가전서 5:27** >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라 > **데살로니가후서 3:14** >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사도의 '편지'도 주의 명령으로 읽히고 지켜져야 한다
베드로후서 3:16 >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바울 서신을 '다른 성경'과 같은 줄에 둠
디모데전서 5:18 >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신명기와 누가복음 구절을 함께 '성경'으로 인용(원문 각주는 5:19)
요한복음 10:27 >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정경 문제에 대한 마무리. 그리스도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 9. 계시된 말씀과 현대 신학자들 ①: 왜 그들은 보지 못하는가

증거가 그렇게 넘친다면 왜 많은 학자는 그것을 보지 못할까? 프레임의 관심은

권위를 주장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대인은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워필드가 이런 사람들을 지적했고, F. C. 그랜트(1950)도 신약 저자들이 성경을 무오하다고 여겼음은 인정했다. 둘째 부류는 성경 일부에 그런 주장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더 중요한 성경 가르침과 맞지 않으므로 성경이 '전체적으로는' 그런 권위 개념에 반대한다고 본다. 곧 성경을 근거로 성경의 오류 가능성을 논증하는 셈이다. 프레임은 결국 이것도 현대 불신앙의 한 형태라고 답하지만, 분석은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개별 주해 반론은 각주에 맡긴다. 예수님이 구약 안에서 구분을 하셨다는 주장, '하나님의 감동'을 다르게 읽는 해석, 영감은 책이 아니라 저자에게만 속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대신 워필드의 '산사태' 비유를 빌린다. 실험실에서는 돌 하나하나가 떨어지는 방향을 계산해 피할 수 있다고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산사태에서는 돌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영감 본문 한두 개를 설명해 치울 수는 있어도 결국 신약 전체를 설명해 치워야 한다. 그래서 프레임은 세부 주해 대신 더 큰 반론으로 넘어간다. “성경의 개념 자체가 계시된 말씀의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주장이다.

1. 관심은 불신앙이 아니라 '추론'이다
2. ① 주장은 인정, 하지만 수용은 거부
3. ② 성경 '전체'가 무오를 반대한다는 주장
4. 개별 주해는 논의 가능하나 결론은 못 피함
5. 산사태: 돌은 한꺼번에 쏟아진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마태복음 5:17-19 > [17]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반론의 대상. 예수님이 구약 교훈 안에서 '구분'을 하셨다는 주장
디모데후서 3:16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반론의 대상. '하나님의 감동'의 뜻을 다르게 읽는

장절	이 구절의 역할
베드로후서 1:21 >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반론의 대상. 이 구절을 근거로 영감은 책이 아니라 저자에게만 있다는 주장

📜 10. 계시된 말씀과 현대 신학자들 ②: 바르트·브루너의 '초월성' 반론

이 견해의 매력은 하나님의 초월성에 있다. 바르트는 성경 속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동일'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브루너는 어떤 인간의 말도 하나님의 자기 소통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 외에 무엇이든 하나님과 동일시하면 우상숭배라는 이 정서에는 종교적 호소력이 있다. 프레임도 성경이 우상숭배를 반대하고 초월성을 중심에 둔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직접 동일성'이 무슨 뜻인지 되묻는다. 하나님과 단어가 같은 것이라거나 글자를 예배하자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정통주의자도 하나님과 언어를 구분하고 성경 말씀의 피조물적 성격을 인정한다.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의 진리·권위·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다. 바르트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된다'고 말하므로 밀접한 관계 자체는 인정한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어떤 종류의 구분이냐'인데, 초월성에 대한 경건한 호소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바르트는 이 관계를 긍정적으로 설명하기를 꺼린다. 디모데후서 3:16을 해설하며 영감을 다가갈 수 없는 신비라 부르고, 다른 곳에서는 저자들의 특별한 순종 태도로 설명한다. 그에게 성경은 신탁이 아니라 증언이며, 계시를 직접 전달하려 하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오히려 가리게 된다. 프레임은 성경이 하나님의 특권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 다만 그 '합당한 특권'이 무엇인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통 견해는 진리를 그리스도 안의 행위에서 떼어 내 '추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참되게 설명해 준다는 것이다. 프레임은 바르트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 신학 시험 벼락치기처럼 기도와 감사 없이 진리를 머리에 쑤셔 넣는 일은 영적 시련이다. 그러나 그 잘못은 진리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교리는 지금의 오용을 막으려고 임의로 세울 것이 아니라 계시 위에 세워야 한다. 결론은 이렇다. 계시된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도

거짓을 판단할 권리를 자기 손에 쥔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신학을 배척해야 한다. 말씀을 부인하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말씀을 경외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다.

1. 초월성 호소는 경건해 보여도 모호하다
2. 정통도 글자를 예배하지 않는다
3. 진짜 질문: '어떤 종류의 구분'인가
4. 메마름의 원인은 진리가 아닌 우리 죄
5. 말씀 경외 = 그리스도 경외

장절	이 구절의 역할
디모데후서 3:16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르트는 영감을 '신비'와 '저자의 순종 태도'로 해석한다. 프레임과 워필드는 가장 부적절한 주석으로 본다
시편 19:7(암시) > **시편 19:7** >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법은 공부하는 자리에서도 영혼을 새롭게 한다(본문에 장절 표기는 없음)
마가복음 8:38 >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
요한복음 8:31 >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성경이 다른 무엇의 보증이 아니라 성경 스스로 하나님 말씀임을 드러내고 증언한다는 뜻이다.

편만성

이 장의 핵심어로, 자기 증언이 몇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다는 뜻이다.

언어계시

하나님이 사건이나 자연만이 아니라 말과 글로 직접 알려 주시는 계시를 말한다.

영감(하나님의 감동)

디모데후서 3:16의 표현으로, 성경이 하나님이 '숨을 내쉬어' 나온 말씀이라는 뜻이다.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뜻이 아니다.

불오성·무오성

성경이 틀리지 않는다는 성질이다. 이 번역서는 주로 '불오성'으로 쓰며, 명제(사실 진술)에 오류가 없다는 뜻으로 쓴다.

정경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되어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되는 책들의 목록이다. 프레임은 그 '개념'이 이스라엘 건국 때부터 있었다고 본다.

전제·궁극적 기준

모든 판단의 맨 밑바닥에 깔린 출발점으로, 그보다 더 높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증명할 때 일종의 순환이 생긴다.

종주권 조약

고대 근동에서 대왕이 신하 왕과 맺던 조약이다. 대왕이 문서를 써서 조건을 정하고 신하는 순종했다(클라인의 제안).

케리그마와 디다케

복음의 '선포'와 신앙생활의 '가르침'으로, 언약 구조 안에서 둘이 함께 자리를 가진다.

수행문

“부부임을 선언합니다”처럼 말하는 순간 일을 이루는 말이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선언이 여기에 해당한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성경의 자기 증언은 몇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퍼져 있으며, 구원 메시지 자체가 그것을 요구한다.
- 하나님의 주권에는 절대적 요구가, 구원에는 확실한 약속이 필요하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 하나님은 그 말씀을 처음부터 기록된 언약 문서로 주셨고, 예수님과 사도들은 구약과 사도의 글을 그렇게 대했다.
- 초월성을 근거로 계시된 말씀을 부정하면 오히려 성경의 하나님과 구세주를 잃는다.
- 말씀을 부인하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말씀을 경외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12편 · 성경은 스스로 빛을 낸다 · 자증성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